

# 살갓들 SKINS

Hakgojae  
Gallery

7.27 -  
8.20



KIM EUN JEONG PARK GWANGSOO LEE WOOSUNG JANG JAEMIN JI KEUN WOOK HEO SUYOUNG

김은정  
박광수  
이우성  
장재민  
지근욱  
허수영

전시제목 : **살갓들**

전시기간 : 2022년 7월 27일(수) - 2022년 8월 20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신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48-4)

**학교재 오룸(OROOM)**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32점

회화 35점

참여작가: **김은정, 박광수, 이우성, 장재민, 지근욱, 허수영**

○ 문 의 02-720-1524~6

○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http://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20727-20220820\_살갓들

##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7월 27일(수)부터 8월 20일(토)까지 청년작가 단체전 《살갓들》을 개최한다.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 속에서 회화의 의미를 새롭게 고민해 보는 자리다. **김은정**(b. 1986), **박광수**(b. 1984), **이우성**(b. 1983), **장재민**(b. 1984), **지근욱**(b. 1985), **허수영**(b. 1984) 등 6인의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청년 세대이자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이다. 학고재 신관에서는 32점, 온라인 전시공간인 학고재 오룸(OROOM)<sup>1</sup>에서는 35점의 회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학고재는 국내외 청년세대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2016년 허수영 개인전, 2017년 이우성 개인전에 이어 2019년 박광수 개인전, 2020년 장재민 개인전, 2019년과 2021년에 톰 안홀트 개인전을 선보였다. 《직관 2017》(2017), 《모티프》(2018), 《프리뷰》(2019), 《아이콘》(2021) 등 청년작가 단체전을 지속적으로 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팔판동 소재의 한옥 전시 공간 '학고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총 17인의 신진작가 개인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는 10월에는 학고재 본관에서 허수영 개인전을, 11월에는 신관에서 김은정 개인전을 연다. 내년 이후 이우성, 지근욱, 박광수, 장재민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다.

## 2. 전시 주제

### 회화의 '살갓들' - 동시대 회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화폐 기술을 미술의 영역에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데이터 형식의 미술 작품을 창작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래하고, 소유하는 일도 놀랍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니 회화가 사뭇 다르게 보인다. 회화의 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단 오늘의 새로운 관점은 아니지만, 조금은 낯선 마음으로 화면을 대하게 되는 것이다. 복제 이미지가 범람하는 지금의 매체 환경 속에서 회화는 이미지 자체의 유일함과 영원성의 가치를 설득하는 문제로부터 한걸음 떠났을 것 같다. 회화가 주는 감동은 오히려 사람의 손이 닿은 흔적과 물감이 영긴 그림자, 붓이 지나간 자리들을 살피는 애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영원하지 않은 물성과 완벽하지 않은 행위, 살아 숨 쉬는 현재에 대한 애착이 회화의 이유가 된다.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총체적 장면이 주는 직관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는 회화에 감명한다.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미술의 세계에서 고전적 매체인 회화는 여전히 호소력을 지닌다. 손에 잡히는 물성과 부피, 질량을 지닌 회화의 표면은 마치 우리의 살갓을 닮은 것 같다. 몸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몸을 통해서만 감각되는 회화는 촉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는 이의 정서가 물감에 실린 채 그날의 붓 위에 올라탄다. 물감을 겹겹이 포개 올린 화면 아래 비밀스런 이야기들이 숨쉰다. 전시는 회화의 살갓들, 온기 어린 화면과 그 아래의 생명력을 낯설게 감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오늘의 회화를 통하여 그리는 이와 보는 이의 다양한 마음이 정서적으로 공명하기를 꿈꾸는 일이다.

<sup>1</sup> online.hakgojae.com

### 3. 작품 및 작가 소개

#### 대표 이미지



김은정

〈여름, 봄〉

2022

캔버스에 유채

162.2x336.3cm

김은정의 근작들은 “살아본 적 없는 시절과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그린 화면이다. 김은정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되는 일들에 대하여 상상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해돋이와 석양을 여러 화면 속에 그려 넣었다. 〈여름, 봄〉(2022)의 화면 하단은 미얀마 시포(Hsipaw)의 선셋 힐(Sunset Hill)<sup>2</sup>, 상단은 북촌에서 바라본 인왕산 자락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화면 중앙에 한자로 쓰인 ‘입춘대길’이라는 글자는 부산의 한 가게에서 목격한 문구다. 곳곳에 등장하는 동식물은 청계천에서 본 두루미, 미얀마와 서울에서 본 나무들이 뒤섞인 모습이다.



김은정

〈녹는점〉

2022

종이에 유채

33.5x24.5cm

〈녹는점〉(2022)은 특정한 풍경을 바라본 기억에 허구를 더해 완성한 회화다. 최지인 시인의 시집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2022)의 표지 그림으로 사용되었다. 최지인 시인은 해당 작품에 대해 다음처럼 썼다.

하늘과 바다가 노랗게 물들어 있다. 노랑은 히아신스 꽃잎 같고 평온하고 잔잔한 목소리 같다. 해의 흔적이 오른쪽 위부터 화폭을 가로질러 왼쪽 아래까지 포물선을 그린다. 파도가 밀려온다. 어쩔 수 없는 일들처럼 조용하고 담담하게. 바람결에 바다 냄새가 실려있다. 파도가 부서진다. 하늘에서는 삶의 파편인 듯 붉고 노란 빛 줄기가 터져 나온다. 뜨거운 것이 닿은 듯이. 빛의 자국들 사이 푸른 빛을 띤 구름이 떠다닌다.

김은정은 1986년에 태어났다. 201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2019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가변크기(서울), 에이라운지(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서울), 한원미술관(서울), 페리지 갤러리(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6년부터 ‘찬다 프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sup>2</sup> 김은정이 미얀마 선셋 힐에 오른 것은 2017년 2월이었다.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거듭난 장소다. 그해 여름, 미얀마의 군부 지도자가 로힝야족의 학살을 자행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2021년 2월에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김은정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보았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비디오 자료를 떠올렸다. 자신이 선셋 힐에서 목격한 아름다운 석양과 평화로운 풍경 위에 그러한 과거의 사건들을 중첩시켜 바라보았다.



박광수

〈구리 인간〉

2022

캔버스에 유채

50x65.1cm

박광수는 모든 사라짐에 대하여 관심 갖는다. 존재의 불완전함과 소멸의 불가항력이 작업의 주제가 된다. 수년 간 검은 숲의 풍경을 주제로 작업해오던 작가가 다채로운 색이 가득한 화면으로 전환한 점이 돋보인다. 평면 회화의 깊이를 고민한 시간 끝에 색의 세계를 탐구하는 면모다. 과거 흑백 회화에서 농담의 조율에 집중하며 화면의 내부로 침투하고자 했다면, 근작에서는 색을 입은 형상들이 화면 바깥을 향해 뛰쳐나올 것만 같다.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도 사뭇 달라졌다. 물살이 거센 강에서 노를 젓듯 빠른 필획으로 “정성스럽게 혹은 공격적으로 대상을 긁어가며” 그려낸다.



박광수

〈수집가〉

2022

캔버스에 유채

162.2x112cm

전시에 선보이는 근작은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자’의 역할 속에 창작자와 작품, 신과 인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대입하여 은유적으로 풀어낸 그림들이다. 〈구리 인간〉(2022)에는 두 인물의 형상이 등장하는데, 좌측의 인간이 긴 막대를 들고 우측에 선 사람 모양 금속 덩어리의 눈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작가에 따르면 “그의 막대 끝에는 창작물의 전망이 선명했으면 하는 염원이 깃들여 있다.” 〈수집가〉(2022)의 화면 전면에 드러나는 인물은 한 손에 둥근 덩어리를 가지고 걸어간다. 아직 가공되지 않은 재료일수도, 태어나지 않은 알일 수도 있다.

박광수는 1984년에 태어났다. 200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조형예술과 졸업 후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금호미술관(서울), 인사미술공간(서울), 두산갤러리(뉴욕,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시립미술관(서울), 경기도미술관(안산), 인천아트플랫폼(인천)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가했다. 밴드 ‘혁오’의 앨범 타이틀곡 〈툼보이〉(2017)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기도 했다.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제7회 두산연강예술상을 수상했다.



이우성

〈지나치게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2015

천에 아크릴릭 과슈, 수성페인트, 젯소

210x210cm

이우성의 회화는 동시대의 초상을 특유의 은유적 조형언어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3점의 작품은 2015년부터 2018년에 걸쳐 그린 회화다. 이우성은 회화의 지지체로 캔버스뿐만 아니라 천을 자주 활용한다.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여 장소의 구애를 덜 받으면서도, 주위의 환경과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지나치게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2015)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바위 터널을 그린 그림이다. 어린 시절 본 만화영화 시간탐험대의 터널처럼 환상적인 공간을 묘사했다. 회화의 언어는 시공을 넘나들고, 비현실적인 상상과 환영을 캔버스 위에 담아낸다. 다만 작품 제목이 말하듯 이우성은 회화 속에 현실의 이야기를 지속적



이우성

## 〈나를 무엇으로 그려야 하는가〉

2015

천에 수성페인트, 아크릴릭

210x210cm

으로 끌어들인다.

〈나를 무엇으로 그려야 하는가〉(2015)는 난지 한강공원을 그린 그림이다. 해질 무렵, 강둑을 따라 걸으며 바라본 풍경을 화면에 담았다. 작가는 회화를 다루는 작가로서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또한 그림으로 무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거듭 고민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려보자”라는 담백한 결론에 이르렀다. 같은 해 그린 〈경계를 달리는 사람〉(2015)은 광주 무등산에 있는 바위를 딛고 선 두 인물을 보여준다. 광주의 풍경을 그리기 위해 방문했던 경험에서 비롯한 회화다. 바위 위에 선 인물들의 모습에 전 세대의 기억을 물려 받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해 물려주어야 하는 주체로서의 청년을 비추어 보았다.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의 경계에 선 청년은 매개의 상징이며, 그리기와 살아감의 경계를 달리는 작가 자신의 투영이기도 하다.



이우성

## 〈경계를 달리는 사람〉

2018

천에 아크릴릭 과슈

210x210cm

이우성은 1983년에 태어났다. 200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후 201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를 졸업했다. OCI미술관(서울), 아트 스페이스 풀(서울), 두산 갤러리(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서울), 일민미술관(서울), 아르코미술관(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가했다. 이우성은 국내 뿐 아니라 독일, 아일랜드,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열린 단체전에도 여러 차례 참가해 이름을 알렸다. 2013년에는 OCI 영 크리에이티브스를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기관들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장재민

## 〈수족관〉

2022

캔버스에 유채

200x300cm

장재민은 풍경을 소재로 한 회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 낮선 장소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얻어낸 감각을 회화의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이다. 언제나 구상적인 소재로부터 출발하지만, 표현적인 붓질로 완성한 화면은 추상에 가깝다. “풍경이 가지는 본래의 원근감, 빛과 그림자, 고유의 형태와 질감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여 얽히고 설켜 그림의 서사가 무의미해지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회화다운 회화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근작은 소재의 특성보다 회화의 과정 자체에 몰두하고자 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먼 거리에서 바라보던 야외의 풍경 대신 실내의 정물처럼 일상적인 시선을 주로 담았다.

적막한 낚시터 풍경을 자주 그려온 작가에게 〈수족관〉(2022)은 익숙한 동시에 특별한 소재다. 자연의 요소를 인위적으로 가두어 둔





장재민

## 〈꽃병 #5〉

2022

캔버스에 유채

117x91cm

풍경이라는 점에서 〈꽃병 #5〉(2022)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작가에 따르면 “주변 상황에 의해 처지가 달라진 대상”들이다. 큰 붓질로 빠르게 그려내는 회화의 과정에는 신체적 요건과 작업 환경의 유연성이 개입하게 된다. 보편적이고 통속적인 본연의 형상들은 분방하게 해체된다.

장재민은 1984년에 태어났다. 201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금호미술관(서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서울), 보안1942(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대전시립미술관(대전), 포스코미술관(서울), 우민아트센터(청주)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가했다.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제36회 중앙미술대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부산현대미술관, 국립해양박물관, 금호미술관 등 다수의 국공립 미술관 및 사립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지근욱

## 〈팽창하는 원기둥 04-22〉

2022

캔버스에 색연필

112x194cm

지근욱은 캔버스를 젓소로 다듬어 매끈한 배경을 만든다. 이후 색연필 선을 반복적으로 그어 화면을 채워 나간다. 다양한 선을 긋기 위해서 제도용 도구를 직접 고안하기도 한다. 근작의 화면은 다채로운 기하학적 형상들을 선보인다. 신관에서 선보이는 7점의 작품 외에도 3점의 추가 작품을 오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팽창하는 원기둥 04-22〉(2022)에서는 유연한 곡선이 서로 뒤엉키며 원기둥의 양감을 만들어낸다. 〈유동하는 관 07-22〉(2022)이 타원형의 도형을 설정해두고 그 안에 선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려진다면, 전자는 선의 경로에 따라 도형이 나타난다. 지근욱이 형태에 접근하는 방식은 회화적이라기보다 수학적이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여전히 손의 흔적을 동반한다. 화면에는 작가의 시간과 재료의 물성이 깃들여 있다.



지근욱

## 〈유동하는 관 07-22〉

2022

캔버스에 색연필

52x76cm

지근욱은 1985년에 태어났다. 201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를 졸업한 후 런던 예술대학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아트 & 사이언스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서울), 노블레스 컬렉션(서울), 스페이스 XX(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조선일보미술관(서울), 일우스페이스(서울), 에이라운지(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런던에서 열린 단체전에도 여러 차례 참가했다. 2017, 2018년도 크리스티 홍콩 정기 경매에서 열린 특별전에서 작품을 낙찰시켜 주목 받았다.



허수영

〈우주 03〉

2022

장지에 유채

162.1x227.3cm



허수영

〈우주 02〉

2022

캔버스에 유채

90,9x72.7cm

허수영의 〈우주 03〉(2022)은 우주의 이미지들을 수 차례 중첩하여 그린 그림이다. 캔버스에 배접한 장지 위에 유화로 작업하여, 장지 특유의 섬유가 물감과 뒤엉키며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허수영은 밤하늘의 이미지가 “시간의 누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이미지”라고 했다. 압축된 시간을 상징하는 우주 이미지를 회화의 과정 속에서 물감으로 중첩하면서, 대상의 시간성과 그리기의 시간성을 포개 놓는 시도다. 작가에 따르면 “별빛들의 만남은 가산 혼합이지만, 그것은 물감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감산혼합으로 묘사된다. 색들은 섞이며 어두워지지만, 두텁게 굳은 붓 터치는 반짝이는 조각이 된다.” 대상과 행위의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그는 “우주가 새로운 회화가 될 때까지, 회화가 한 번도 도달한 적 없는 우주가 될 때까지” 그리기를 반복해간다.

〈우주 02〉(2022)는 우주 속 은하와 별들의 모습을 해변의 모래알에 빗대어 그린 그림이다. 우리는 누구나 우주의 이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별들의 모양새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많지 않다. 주어진 이미지와 정보를 통해 상상된 풍경일 뿐이다. 허수영은 가상의 별들을 섬세한 붓으로 묘사했다. “우주를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그리기가 “재현이 아니라 창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서다.

허수영은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8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2010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자하미술관(서울), 인사미술공간(서울), 학고재(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서울), 광주시립미술관(광주), OCI미술관(서울), 금호미술관(서울)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가해 작품을 선보였다. 고양레지던시,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 국내 주요 레지던시에 선정되어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OCI미술관, 자하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미술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 4. 기획의 글

### 살갓들

박미란(학교재 기획실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생각한다. 물결과 바람, 시간의 지나감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다. 가상을 사유하고 또 소유하는 문제의 모호함 속에서 손가락을 꼬아 보고, 다시 펼쳐 본다. 그리고 오늘의 애뜻한 눈으로, 우리의 살갓을 보듬듯 회화의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멈추어 있는 회화를 마주하는 순간에 생동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다. 감각은 언제나 논리 이전에 온다. 회화의 살갓에 머무르는 시간과 기억, 소리와 감촉의 총체적 만남이 빚어내는 낮섬으로부터다. 닿을 듯한 가상의 감각, 보일 듯한 환영의 실체를 한 장의 가벼운 평면 위에서 발견하려는 노력은 몸을 가진 존재의 연민일까. 회화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보이도록 하는 일이다. 그 투명한 힘은 신체라는 파동의 장 위에서만 감각된다.<sup>3</sup> 그리는 이의 몸에서 출발하여 보는 이의 몸으로 되돌아오는 힘의 재질은 회화라는 특별한 매개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된다. 여정의 가운데 재료가 있고, 도구가 있다. 화면과 장소의 규모가 관여하고 그날의 온도와 습도 또한 동참한다. 어제의 사건과 오늘의 정서, 내일의 상상이 은연중에 묻어난다.

#### 하나. 보이지 않는 힘

세상의 일부만을 겪어내며 전체를 꿈꾸어 본다. 너무나 멀리 있어 잡히지 않으므로 오롯이 관념적인 꿈이다. 일렁이는 바다의 표면과 아득한 밤하늘의 피부는 그 안에 무수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깊이로부터 올라온 생명의 숨이 빛을 만나 색채가 되고, 모양이 된다. 허수영(b. 1984)은 우주의 생김새를 천진하게 상상하고 진솔하게 그려냈다. <우주 02>(2022)의 화면은 파도에 실려 온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하나를 우주 속 별들처럼 빛어낸다. 무수히 쏟아지는 별들의 존재를 손가락 사이 흘러지는 해변의 모래에 빚던 시도다. 허구적인 것들을 충실하게 묘사한 화면이 무거운 천체의 역설적인 가벼움을 드러낸다. 또는 반대로, 덧없는 모래알들이 지닌 저마다의 중력을 시사한다. <우주 03>(2022)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면의 중첩을 시도한다. 화면은 두터워지고 형상은 보다 추상적인 것이 된다. 실재하지만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화가의 직관이 물감에 용해된다. 특유의 질감과 색채의 진동을 머금은 존재로서, 회화는 그만의 몸을 얻는다.

지근욱(b. 1985)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화면은 대상을 묘사하지 않으며, 선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환영만을 드러낸다. <진동수(원기둥)>(2022)과 <진동수(곡선 #2)>(2022) 연작은 빗금과 곡선들로 날날이 분해된 기하학적 형상들을 선보인다. <팽창하는 원기둥>(2022)에서는 색선들이 나선형 구도를 이루며 눈의 착시를 유도한다. 제도용 도구를 활용하여 규칙에 따라 제작되는 화면 특유의 호소력은 도리어 계획이 무너질 때에 생겨난다. 완벽에 닿을 수 없는 몸과

<sup>3</sup> Gill Deleuze,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trans. Daniel W. Smith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3), pp. 56-57; 질 들뢰즈, 『감각의 논리』, 하태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08), pp. 69-70.



재료의 협업이 회화의 이유를 역설한다. 시시각각 부스러지고 미끄러지는 색연필 가루가 손에 의한 그리기를 증언한다. 정해진 목표를 향해 도구를 밀어붙이는 작가의 힘은 호흡의 강도와 정서의 높낮이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한다. 원하는 방향으로 치달다가도 한 순간 흔들리고, 여러 번 멈추어 선다. 그러다 마음을 가다듬고는 이내 본래의 궤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감정의 보풀을 단 선들은 오늘의 날들 속에서 진동한다.

### 둘. 오늘과의 공명

회화의 화면이 전달하는 감각은 때로 내밀한 정서에 침투한다. 또 다른 때에는 집단적인 힘으로서 공명한다. 이우성(b. 1983)이 천에 그린 회화는 캔버스 작업에 비하여 확장된 관계를 매개한다. 그에게 있어 지지체의 선택은 우선 규모에 관한 문제이다. 회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주하는 거리의 다름에서 비롯되는 경험의 차이를 고려한 선택이다. 일렁이는 천의 재질은 보는 이로 하여금 회화의 주변을 의식하도록 유도한다. 화면의 뒤편을 상상하고, 가장자리의 실밥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화가 현재와 조금 더 관계 맺도록, 그리하여 모두가 <지나치게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2015) 말이다. 그가 그리는 사람들과 사물들, 풍경들은 저마다 은유와 상징이 되어 다수의 화면 위에서 호응한다. <경계를 달리는 사람>(2018)은 무등산 바위 위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멈추어 있는 바위와 지나가는 삶을 잇는 매개적 존재다. 환영과 실재, 과거와 미래, 그리기와 살아감의 경계를 달리는 작가 자신의 투영이기도 하다. 이우성의 회화는 삶에 관한 진솔한 고백이자 오늘에 대한 증언으로서 그와 닮은 이들의 일상에 공명한다.

김은정(b. 1986)은 일상의 경험과 정서를 소재로 작업한다. 보고 겪은 매일의 사건을 캔버스 위에 짜깁기하는 일이다. <여름, 봄>(2022)은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날씨에 떠난 산행의 경험을 소재 삼은 회화다. 평범한 풍경을 재구성한 화면이 이유 모를 신비함을 자아낸다. 인물과 동물의 얼굴들은 모두 화면 뒤편을 향하거나 원경에 놓여 어렵풋한 실루엣만을 드러낸다. 화면 중앙에 한자로 적은 입춘대길의 소망은 매일같이 떠오르는 태양의 언저리에서 정처 없이 부유한다. <손의 모양>(2022)의 화면 위에 드러나는 손들은 서로를 가리키고, 무언가를 지시하며, 타인을 감싸 안거나 거부한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손짓들 뒤로 또다시 매일의 달이 뜬다. 회화를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지금의 이야기이다. 미시적인 날들을 바라보는 화면은 더 이상 지난날의 유령이 아닌 숨 쉬는 오늘의 살갓이다.

### 셋. 촉각적인 세계

뜨거운 금속을 긴 막대로 휘저어 금세 사라질 연약한 얼굴들을 그려본다면, 화면을 대하는 박광수(b. 1984)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 도구를 쥐 그의 손은 상처 내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물감의 점성을 가로지르며 기억하고 싶은 만큼의 속도로서 화면 위를 나아간다. <구리 인간>(2022)의 세상은 색으로 뜨겁고 붓질로 소란하다. 검은 숲을 향하던 걸음을 잠시 멈춘 채 그간 모은 색채를 찬란하게 쏟아내는 것이다. 화면의 중심에 두 몸의 형상이 등장한다. 그리는 이와 그려지는 이는 작가와 작품, 인간과 비인간의 은유인 동시에 같은 물성을 공유하는 존재의 닮음을 보여준다. <수집가>(2022)의 원근 없는 세상 한편에 색이 빗방울을 뿌린다. 인물은 비에 젖어 들지 않으며 불안한 표정으로, 그러나 또렷한 눈빛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한 손에는 커다란 알처럼 보이는 덩어리를 지니고 있다. 부화하지 않은 생명을 화면 바깥으로 꺼내어 놓기 위하여 유유히 나아가는 걸음일 테다. 풀과 돌,

선과 색, 사람과 그림은 영키어 하나의 촉각적인 세계를 이룬다. 사라짐 때문에 영원한 기억, 불완전해서 의미 있는 만듦의 가치를 녹여 그린 회화다.

장재민(b. 1984)은 보는 일과 그리는 일 사이의 여정에서 고민하고, 탐험한다. 시각적 풍경에 대한 의심이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한 경험을 증폭시킨다. 화면은 분방한 손의 흔적들로 가득하지만 완전한 추상으로 부서지지 않는다. 윤곽은 형태를 놓아줄 듯 위태롭게, 그러나 꾸준하게 지탱한다. 모양을 흐트러뜨리고 짓이김으로써 행위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의 화면들은 이전과 달리 장소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탈각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꽃병 #5>(2022)과 <수족관>(2022)은 작업실 안에서 빈 화면과 독대하며 그린 회화다. 머릿속의 장면을 회화로 옮기는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평이한 소재를 선택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변 상황에 의해 처지가 달라진 대상'들이다. 화면은 대상화된 자연의 풍경을 회화의 언어로 번역한다. 다만 보기 좋게 묘사하지 않으며, 그리기의 불가항력 속에 모두를 끌어들인다. 관념에 물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또는 그저, 모든 존재가 하나의 촉감이 되게 하는 일이다. 화면은 창작자와 재료, 환경이 동등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물로서 드러난다.

오늘의 날들을 살아가는 회화는 사람의 몸을 닮은 예술이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매일의 한편에서 회화의 물성은 여전히 자라난다. 영원에 대한 바람을 미루어 둔 채, 오롯이 그 몸을 대하여 본다. 회화의 살갓이 지닌 자아는 비단 화가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다. 겹겹이 쌓여 이룬 살갓들, 그 아래의 생명에 대하여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하는 붓질의 속도와 색채의 진동을 대면하는 일이다. 잡히지 않는 가상을 감각하기 위하여 다시, 실재하는 회화를 말갛게 본다.

## 5. 작가 약력

- **김은정** 1986 경상남도 거제도 출생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졸업  
20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 개인전**  
2021 가장 희미한 해,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9 홈커밍, 가변크기, 서울  
2018 연기나는 사람, 에이라운지, 서울
- 단체전**  
**2022 살갓들, 학교재, 서울**  
2021 페리지윈터쇼 2021, 페리지 갤러리, 서울  
시리얼즈 2021, 레인보우큐브, 서울  
작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소원들, 공간 카다로그, 서울  
BGA 쇼룸, BGA 마루, 서울

- 아이콘, 학교재, 서울
- 2020 구름의 일각, 공간서울, 서울  
반짝이는 소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나의 영토, 의외의조합, 서울  
멘토멘티, 한원미술관, 서울
- 2016 버티컬 라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낮선 이웃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프로젝트**

- 2020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피죤밀크 포스터, 아르코 아트토크, 온라인 전시
- 2017 서울은 미술관, 팝업, 무인예술서점 <쫓>, 서울
- 2016 동북부 미술대학 연계 발굴 프로젝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3 잃고 싶지 않은 것들,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출판**

- 『난민들기』(찬다프레스, 2021)
- 『잠』(찬다프레스, 2019)
- 공저, 『캐비넷. Vol. 8: 예술가 여행이야기』(일현미술관, 2018)
- 공저, 『탄생 쫓 책방』(찬다프레스, 2017)
- 공저, 『지면전시』(스페이스윌링앤딜링, 2015)

**수상**

- 2017 일현 트래블 그랜트, 일현미술관, 양양

○ **박광수**

- 1984 강원도 철원 출생
- 200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조형예술과 졸업
- 2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석사 졸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1 크래커, 카다로그, 서울
- 2019 영영 없으리, 학교재, 서울
- 2018 훔날리는, 두산갤러리, 뉴욕
- 2017 부스러진, 두산갤러리, 서울
- 2016 좀 더 어두운 숲, 금호미술관, 서울
- 2015 검은 바람, 모닥불 그리고 북소리, 신한갤러리, 서울
- 2014 워킹 인 더 다크,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 2013 반허공,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2 맨 온 필로우,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11 2001 어 스페이스 콜로니, 갤러리비원, 서울

**주요 단체전**

- 2022 **살갓들, 학교재, 서울**  
하우 데이 워크, 에브리아트, 서울

- 연박식 프로젝트: 오늘,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사루비아 기금마련전시,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 2021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진동하는 숲, 또 하나의 그림자, 페이지룸8, 서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 비엔날레 3관  
유달초등학교(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목포  
빈지 워칭; 14284", 경기도미술관, 안산  
비록 춤 일지라도, 코스모40, 인천  
돈 세이 어 워드,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문인사 기획전 6: 김훈, 여기에서 나는 산다,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38°C, 학교재, 서울
- 2020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창원조각비엔날레 특별전 2: 그리고 둘만 남았다, 성산아트홀, 창원  
기대는 그림, 누크갤러리, 서울  
동그라미에게, 의외의조합, 서울  
이 공간, 그 장소: 헤테로토피아, 대림미술관, 서울
- 2019 칸 퍼레이드 2019 - 칸쏘네: 타고난 버라이어티, 탈영역우정국, 서울  
가능한 최선의 세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예테보리국제도서전 - 67개의 밤, 스웨덴 전시·회의센터, 예테보리, 스웨덴  
프리뷰, 학교재, 서울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디엠지, 문화역서울284, 서울  
코끼리, 그림자, 바람, 경기도미술관, 안산  
회화의 시간: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기초조형연구 I, 일우스페이스, 서울
- 2018 북쪽의 숲, RX갤러리, 파리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2017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인간 X 기계 시스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  
B컷 드로잉, 금호미술관, 서울  
메모리 트릴로지, 갤러리 플래닛, 서울  
난지아트쇼 I: 20면체 분광기,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6 백야행성, 합정지구, 서울  
블랙, 더 정글, 스페이스K, 대구  
트윈 픽스, 하이트컬렉션, 서울  
장소와 각주, 금천예술공장, 서울  
더 애니메이션 쇼,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불명열, 갤러리175, 서울  
삼키기 힘든, 두산갤러리, 서울  
우드컷팅, 가변크기, 서울
- 2015 홍성, 답다 - 얼굴, 초상, 군상, 이응노의 집, 홍성  
디지털아트: 도시 풍경,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어쩌다보니, 애니메이션,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우주는 대체로 텅 비어있다, 오픈베타공간 반지하, 서울  
페르소나, 갤러리그림손, 서울
- 2014 살아있는 밤의 산책자, 지금여기, 서울

- 건기, 리듬의 발견, AK갤러리, 수원
- 오늘의 살롱 2015, 커먼센터, 서울
- 아르코아카이브 프로젝트 1: 뉴 아카이브 매터리얼스,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아카이브, 서울
-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3 공중시간, 성곡미술관, 서울
- 제5회 오프 앤 프리 국제확장영화예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어린이 미디어아트 체험 - 미디어+놀이터, 트라이볼, 인천
- I=EYE, 키미아트, 서울
- 2013 플랫폼 액세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2 우민극장 2012 만국박람회, 우민아트센터, 청주
- 점령,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0 이해를 향한 오해, 송원아트센터, 서울
- 1+1, 짐 프로젝트, 서울
- 2009 광화문, 상상,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서울
- 가변크기 2, 보다갤러리, 서울
- 가변크기 1, 토포하우스, 서울
- 2008 씨네 포럼 4: 디지털 포트폴리오 - 6가지의 시각,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 언 이디엇 워드 어 비디오 카메라 vol. 1, 갤러리 안단테, 서울

**주요 프로젝트**

- 2017 혁오 정규 1집 앨범 『23』 타이틀곡 <툼보이> 뮤직비디오 제작
- 2012 《광장사각廣場四角 - 홍승혜》(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협업

**레지던시**

- 2018 두산레지던시, 뉴욕
- 2017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5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4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3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
- 201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수상**

- 2016 제7회 두산연강예술상, 두산아트센터, 서울
-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 서울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과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경기도미술관, 안산

○ **이우성**

- 1983 서울 출생
- 200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졸업
-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1 어쩌면 우리에게 더 멋진 일이 있을지도 몰라, 두산갤러리, 서울
- 2017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학고재, 서울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 2015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 2013 돌아가다 들어가다 내려오다 잡아먹다, OCI미술관, 서울
- 2012 우리가 쌓아 올린 탑,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흥은예술창작센터, 서울  
불 불 불, 갤러리175, 서울

**주요 단체전****2022 살갓들, 학고재, 서울**

- 거의 정보가 없는 전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 체크포인트: 한국에서 바라본 국경, 볼프스부르크 미술관, 볼프스부르크, 독일
- 연박싱 프로젝트: 오늘, 뉴스프링 프로젝트, 서울
- 사생: 그곳에 내가 있었다, 에이라운지, 서울
-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 경계협상, 시드니, 주시드니한국문화원, 시드니, 호주
- 2021 세마 컬렉션(SeMA Collection): 포착된 시간, 역삼1문화센터, 서울
- 오감도(五感圖):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 아우랄 갤러리, 마드리드 (온라인 전시)
- 보니, 뮤지엄헤드, 서울
- 빈지 워칭; 14284", 경기도미술관, 안산
- 개인들의 사회,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수행하는 회화, 디스이즈낫어처치, 서울
- 38°C, 학고재, 서울
- 2020 제1회 지난국제비엔날레: 합동력, 산동미술관, 지난, 중국
- 아트 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 전혀 예술적인, 엉성한 미술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 내가 사는 피드, 아르코미술관, 서울
- 오감도(五感圖):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 기획 에이라운지 갤러리, 서울, 협력 마나랏 알 사디야트 미술관, 아부다비 (온라인 전시)
- 낙원에서 폭풍이 불어와, 교보아트스페이스, 서울
- 진달래꽃 피고 지고,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우리와 당신들, 경기도미술관, 안산
- 뉴노멀, 오래된 집, 서울
- 링,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사각을 뜻하는, 주홍콩한국문화원, 홍콩
- 2019 어쩌면 빛나고 있을,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서울
- 칸 퍼레이드 2019 – 칸쏘네: 타고난 버라이어티, 탈영역우정국, 서울
- 제7의 인간 #4 "부침개 파티", 스페이스 엠엠, 서울
- 예술가의 배움, 서울교육대학교 샘(SAM) 미술관, 서울
-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 미술이 살고 있는 그 집, 송장당대예술문헌관, 베이징;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MI, 도쿄; 페이 아트 뮤지엄, 요코하마, 일본
- 링,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사각을 뜻하는, 인사미술공간, 서울
-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대구미술관, 대구; 국립현대미술관, 뉴델리
- 프리뷰, 학고재, 서울
-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가오슝미술관, 가오슝, 대만; 경기도미술관, 안산

- 신생공간 - 2010년 이후의 새로운 한국미술, 켄론 카오스\*라운지 고탄다 아틀리에, 도쿄  
멀티-엑세스 4913,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 공간 일리, 서울  
불멸사랑, 일민미술관, 서울  
풀이 선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 2018 아직 살아 있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제12회 광주비엔날레 - 상상된 경계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 만화, 그 너머, 한국만화박물관, 부천  
유쾌한 똥톡(코멘터리), 보안여관, 서울  
더 쇼 머스트 고 온, 두산갤러리, 서울  
서로; 공존, 경기문화재단 로비갤러리, 수원  
브릿지 프로젝트 - 낯선 출발, 공간시은, 전주  
옥tober,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칸 퍼레이드 2018 - 깨무는 칸들, 탈영역우정국, 서울
- 2017 더 스크랩, 왕산로9길 24, 서울  
옥tober, 아르코미술관, 서울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 - 공동체 아카이브, 일민미술관, 서울  
꿈꾸지 마라, 다른 세상은 없다: 피로사회에서의 노동과 예술이 주는 위로,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별의 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풀이 선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그 집, OCI미술관, 서울  
불확실한 경계, 헤리티지 스페이스, 하노이  
기록으로서의 그림, 소소룸, 서울
- 2016 서울포커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트윈 픽스, 하이트컬렉션, 서울  
클로스 릴레이션: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은 예술, 예술이 되고픈 대중, 상상마당, 서울  
추적자; 그들은 너무도 사랑했다, 보안여관, 서울  
나레이션, 스페이스비엠, 서울  
그다음 몸\_담론, 실천, 재현으로서의 예술, 소마미술관, 서울  
유영하는, 구체적인, 두산갤러리, 뉴욕  
난지 9기 리뷰: 구사구용,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5 괴어오르다, 샴표스페이스, 인천  
폐허에서,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굿-즈, 세종문화회관, 서울  
페스티벌284 - 미친광장, 문화역서울284, 서울  
기브 웨이, 웨스퍼드 아트센터, 웨스퍼드, 아일랜드  
난지아트쇼 IV: 청색증,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난지아트쇼 II: 밤바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자기소개서,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풀이 선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육감, OCI미술관, 서울
- 2014 원스 이즈 낫 이너프, 시청각, 서울  
카테고-라이징, 갤러리 175, 서울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 별별동행(別★同行), OCI미술관, 서울; 광양문화예술회관, 광양; 포항문화예술회관, 포항;  
영주문화예술회관, 영주; 군산예술의전당, 군산  
본업: 생활하는 예술가, 두산갤러리, 서울
- 2013 사랑은 불가능하다,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드로운 투 드로잉, 갤러리 카제, 오사카, 일본; 나카이 갤러리, 교토, 일본  
플럭서스 포캐스트,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사건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가까운 미래, 먼 위안,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우문현답,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 2012 세탁기 장식장,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서울; 판교생태학습원, 판교
- 2011 사이사이 프로젝트, 초능력 및 이태원 일대, 서울  
영 & 업커밍, 쿤스트할레 광주, 광주
- 2010 열사흔날 밤 - 회화 일별, 한국예술종합학교 신관갤러리, 서울  
레이 플래시, 한전아트센터, 서울
- 2009 퍼블릭 스튜디오\_IV: 사랑방 손님들과 배다리, 스페이스 빔, 인천
- 2008 A∩B, 텔레비전12, 서울

**프로젝트**

- 2022 공전: 던지기, 엔젤리즘, 서울
- 2021 휘뚜루 마뚜루: 긴긴밤 부영이 x 별관,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브; 별관, 서울
- 2020 기담: 가늘게 굵은 이야기 - 인천 서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코스모40; 장고개로 일대, 인천  
각자의 위치를 기억하며 흩어진 조각들, 전혀 예술적인, 영성한 미술관, 남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긴긴밤 부영이, 부산현대미술관 유튜브  
이상한 봄, 라이브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Ep. 1, 인스타그램 라이브; 다용도실, 서울
- 2019 등등 오리배, 오퍼센트, 서울  
기울어진 밤 그리기 워크숍, 일민미술관, 서울  
예술가의 런치박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8 산 너머 굽이굽이, 일민미술관 벽화 프로젝트, 서울
- 2017 키스 키스, 헬로! 아티스트 서울로 7017, 서울
- 2016 아웃도어 페인팅 프로젝트, 더 피직스 룸,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 2011 제14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사부작사부작 - 움직이는 겨울 두 개, 플레이스막, 서울

**레지던시**

- 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6 더 피직스 룸,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 2015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4 카우 하우스 스튜디오, 에니스코시, 아일랜드
- 2013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 2012 서울문화재단 흥은예술창작센터, 서울
- 2009 스페이스 빔 국제레지던시프로그램, 인천

**수상**

- 2013 OCI 영 크리에이티브스, OCI미술관, 서울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경기도미술관, 안산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OCI미술관, 서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 **장재민** 1984    출생
- 201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201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22    머디 베드, 보안1942, 서울
- 2020    부엉이 숲, 학교재, 서울
- 2018    길의 끝, 피앤씨갤러리 풍국창고, 대구  
아.무.일.도, 에이라운지, 서울
- 2016    플로팅 컨테이너,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비린 곳, 금호미술관, 서울
- 2015    이중의 불구, 포스코미술관, 서울
- 2014    시간을 잃어버린 풍경,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주요 단체전**

- 2022    **살갓들, 학교재, 서울**  
수직의 수면, 슈페리어갤러리, 서울
- 2021    우리가 머물던 자리, 우민아트센터, 청주  
비탈길을 좋아했지,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38°C, 학교재, 서울
- 2019    페피니에어19, 도멘 드 케르게넥 미술관, 모르비앙, 프랑스  
프리뷰, 학교재, 서울  
미메시스 AP2: 플랫폼, 낫 플랫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금호영아티스트: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서울  
회화의 시간: 종근당 예술지상 역대 선정작가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넥스트코드 2019,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17    풍경 - 경계, 대구신세계갤러리, 대구  
직관 2017, 학교재, 서울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2016    청년미술프로젝트, 엑스코, 대구  
랜드.인.사이트, 스페이스K, 과천
- 2015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컬렉션, 서울
- 2014    동아시아국제교류전,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더 그레이트 아티스트, 포스코미술관, 서울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3 모어 스페이스: '온고잉'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전시 프로그램,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 한국은행 한은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2019 도멘 드 케르케넥 미술관 레지던시, 모르비앙, 프랑스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6기, 천안

**수상**

2015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종근당홀딩스, 서울  
2014 제36회 중앙미술대전, 중앙일보, 서울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금호미술관, 서울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한국은행, 서울

○ **지근육**

1985 서울 출생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2016 런던 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아트 & 사이언스 석사 졸업  
202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박사 졸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21 잔상의 간격, 에이라운지, 서울  
2020 조율된 선, 노블레스 컬렉션, 서울  
2019 선분의 영역,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8 운동하는 감각, 스페이스엑스엑스, 서울  
2017 미성숙한 구, 63아트, 서울  
실제의 역동성, 리디아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2** **살갓들, 학교재, 서울**  
더리뷰 파라다이스시티,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인천  
하우 데이 워크, 에브리아트, 서울  
심연의 탐색, 라현갤러리, 서울  
**2021** **아이콘, 학교재, 서울**  
더리뷰, 노블레스 컬렉션,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왓 이프!, 에이라운지, 서울  
뉴 타입,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 서울  
**2020** **작업의 온도, 일우스페이스, 서울**  
네 개의 질문, 리디아 갤러리, 서울



- 2019 하이퍼 살롱,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아트369, 용산공예관, 서울  
4482, 셸로아트, 서울  
사이드비, 가고시포 갤러리, 서울  
비스타아트, 비스타 워커히 서울, 서울  
언리미티드, 갤러리 B, 서울  
도약으로의 여정,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 갤러리, 서울  
플랫 무브먼트, 정샘물 플롭스, 서울
- 2018 모호함 속의 명확함: 추출하는 사람들, 최정아갤러리, 서울  
하이 플로우 스크린, 딜라이트 아트 월, 딜라이트 스퀘어, 서울  
교학상장전,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악어와 악어새,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서울  
미적 공범자, 스페이스엑스엑스, 서울  
뉴 택틱스, 백룸, 서울
- 2017 비트윈, 소피스갤러리, 서울
- 2016 학스 어워드, 유니트 런던, 런던  
큐리어스?, 그래너리 광장, 런던  
언폴딩 리얼리티스, 런던 예술대학교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런던
- 2015 마인드 / 매터, 엘손 스튜디오, 런던  
아이들이 못한 것은 당신 탓이다, 더 런던리, 런던

○ 허수영

- 1984 서울 출생
- 200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조형예술과 졸업
- 2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 2018 63아트, 서울
- 2016 학교재, 서울
- 2013 리센트 페인팅즈, 인사미술공간, 서울  
3852 페이지, 5725 이미지, 신세계갤러리, 광주
- 2011 Ctrl+V,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0 더 스몰러 메이저리티, 자하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 2022 살갓들, 학교재, 서울
- 2021 인 블룸, 하이트컬렉션, 서울  
38°C, 학교재, 서울
- 2020 21.2세기, 학교재, 서울
- 2019 디엠지, 문화역서울284, 서울
- 2018 크리에이티브 리포트, OCI미술관, 서울
- 2017 오픈 스투-디오,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메타-스케이프, 우양미술관, 경주  
기억과 기다림, DMZ 캠프그리브스, 파주  
그 집, OCI미술관, 서울  
난지 10기 리뷰: 보고.10.다, 세마 창고, 서울

- 2016 10기 오픈스튜디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난지아트쇼 VI: 거미가 줄을 타는 이유,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난지아트쇼 II: 회화극장,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난지아트쇼 I: 공기식물들,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5 심감도, 스페이스K, 과천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컬렉션, 서울
- 2014 시간의 향기, 금호미술관, 서울  
시대의 눈 - 회화, OCI미술관, 서울  
만물상 - 사물에서 존재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서울
- 2013 경계의 회화, 금호미술관, 서울  
거울과 램프, 신세계갤러리, 서울  
공유된 고립, 금호미술관, 서울  
만물상 - 사물에서 존재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우리가 경탄하는 순간들, 학고재, 서울  
사유된 정경,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 2010 코리아 투모로우, 세텍, 서울  
과정을 묻다, 모란미술관, 남양주

**레지던시**

- 2019 양지리레지던시, 철원
- 2018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 2017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 2016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4 몽인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3 금호창작스튜디오, 인천
- 2012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광주
- 2010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수상**

- 2012 대상, 제14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세계갤러리, 광주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OCI미술관, 서울  
자하미술관, 서울  
몽인아트스페이스, 서울  
신세계백화점, 서울  
시문느, 의왕  
코오롱, 과천  
을지재단, 서울